

## “PCT 국제출원 특허가능 여부 조기에 알 수 있다”

- 앞으로 PCT 국제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기에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특허청에 따르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현재 지나치게 복잡한 PCT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특히, PCT 국제출원 발명에 대하여 우선일부 16개월 이내에 선행기술조사 결과만을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현행 국제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이 기간 내에 출원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하여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국제조사 결과를 통하여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되면 국제조사 결과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출

원인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출원 발명의 이전을 위한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 한편, 국제조사 결과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출원인은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국제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공개에 따른 불이익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이 방안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PCT 동맹총회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PCT 국제출원의 심사는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되고 국제단계는 다시 국제조사 단계와 국제예비심사 단계로 구분된다.

○ 국제단계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 진입하기 전 단계를 이르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며 국제조사는 PCT 우선일부 16월, 국제예비심사는 28월 이전에 완료된다.

○ 국제조사는 모든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출원 발명에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며,

-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의 심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특허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 보는 것으로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건에 한하여 수행된다.

## 대기업 보유 특허 100건중 92건... 돈 안되는 “애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연구원인 K박사(39). 그는 1993년 입사한 뒤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특허를 따냈다.

그러나 그 중 사업화에 직접 이용되거나, 사용권을 다른 기업에 판 것은 하나도 없다.

K박사는 “일단 가능하면 특허를 내고보라는 회사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특허를 냈을 뿐, 내 자신도 이런 것을 굳이 특허까지 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국내 대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가 10건 중 8건 꼴로 사용조차 하지 않고 사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의 특허 사업화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허청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41개 대기업의 특허 1만7천여건을 대상으로 사업화 성공 여부를 조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특허 중 기술개발비용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사업화 성공)은

7.2%에 불과했다.

또 다른 기업에 대가를 받고 특허권을 넘긴 경우는 0.08%뿐이었다.

수익을 가져다주는 특허가 1백개 중 8개도 채 못되는 셈이다. 또한 수익 여부를 떠나 사업화에 이용된 특허는 21.9%뿐으로, 10건 중 8건 꼴이 아예 사업화에 쓰이지조차 않았다.

특허청 정양섭 국장은 “일본의 특허사업화 성공률은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30%선”이라며 “조사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기술 상품으로서 가치 있는 특허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세간의 지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런 부실 특허가 양산되는 것은 기업들이 특허출원 여부를 인사고과 평가에 적용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어 내놓고보자식의 출원이 많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의 질보다는 양에 집착하는 기업들의 경쟁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풍토는 기업에 부담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해외에 2만5천여건의 특허를 등록한 대기업 A사 관계자는 “특허 출원·유지 등 관리비용으로 최근 3년간 4백억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권 이전이 평균 0.08%에 불과해 기술료 수입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미국 IBM은 2000년 기술료 수입이 17억달러(약 2조원)로, 국내 2000년 총기술수출액(2억달러)의 8.5배에 해당한다.

이는 특허 1건당 약 1억3천만원의 기술료를 벌어들인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학상 수석 연구원은 “앞으로 미국 퀄컴의 CDMA기술이나 국내 기업이 개발한 MPEG기술처럼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향후 커다란 수익을 올려줄 분야에 연구개발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 미국 · 일본 서로 특허 인정

미국과 일본이 2004년부터 상호 특허청 심사를 통과한 특허를 서로 인정키로 기본합의를 이뤘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국가간 상호 특허인정은 처음이다.

지금은 미·일 기업이 두 나라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양국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각각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시행되면 두 나라 기업이나 개인은 양국 특허청에 각각 특허출원은 하되 심사는 원하는 나라 한곳에서만 받으면 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업의 특허취득 기간·비용이 대폭 줄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허청도 업무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양국의 특허제도가 다른 점이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유사한 특허를 출원했을 경우 일본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미국은 먼저 발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다.

양국 특허청은 이런 제도상의 차이를 포함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양국에 동시 출원된 특허심사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에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미국에 특허출원하는 외국기업이 급증하면서 미국 특허청이 심사지연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일본에 제안했고, 일본도 기업의 특허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동의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 지능형 로봇 관련 본격 특허경쟁 돌입

기존 산업용 로봇시장이 포화 단계에 접어든 반면 지능형 로봇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기업간 특허경쟁이 표면화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과 관련, 1980년대까지는 연간 10건 안팎의 특허가 출원되는 데 그쳤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해마다 27(92, 96년)-67건(98년) 등 연 평균 39.0건이 출원됐다.

이러 2000년에는 상반기에만 80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등 최근 들어 지능형 로봇관련 특허 출원이 폭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외국기업의 경우 인간의 동작이나 표정, 감정 등을 인식하는 기술에 강세를 보여 1998년 이후 출원된 7건 모두가 외국기업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내기업은 정보기술과 결합된 로봇의 원격제어기술 분야에서 우세(13건 중 9건)를 나타

냈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지능형 로봇 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분야를 국책과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통상 본격적인 기술경쟁에 돌입하기 전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 국내 디지털저작권보호기술 특허 출원 두드러져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DRM)과 관련한 국내업체들의 특허출원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에 대한 국내업체의 출원은 1998년 7건에 불과했으나 1999년 15건, 2000년 6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70건을 기록, 3년만에 10배로 늘어났다.

외국업체의 경우, 1998년과 99년에 각각 8건·20건으로 국내업체의 특허출원수보다 많았

지만, 2000년 1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5건에 그쳐 국내업체의 출원이 외국업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0년과 지난해에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낸 곳이 모두 국내 중소 벤처기업으로 대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의 출원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콘텐

츠 유료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인지도와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 사업이 연평균 5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술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LED 특허 비상... 미국·일본등 응용분야까지 출원 공세

LED(반도체 발광소자) 분야의 원천기술 및 요소별 기술 특허를 독점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업체들의 특허 공세가 조만간 한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허청 및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 장치(휴대폰 키패드), 백라이트 용부품(휴대폰)에서 최근 신호등과 자동차용 전등, 실내 조명

(백색 LED) 분야까지 반도체 발광소자(LED)의 응용시장이 넓어지면서 국내기업들도 앞다퉀 기술 개발 및 세계 시장 참여를 시도 중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특허분쟁이 미국·일본에서 전세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선두업체간 기술 확보 및 특허 라이선싱 정책 또한 복잡·다양화 양상을 빚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보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자칫 막대한 외화유출은 물론 산업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 LED특허 동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LED기술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90년대 중반 이후 연 20%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40%대로 급

격히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의 출원비중이 전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업체도 니치아(일본), 도요다 고세(일본), CREE(미국) 등 선발업체에서 최근 샤프, 히타치(일본) 등과 후발주자와 루미리스라이팅 등 조명업체로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출원 내용 역시 청색LED 등 기본 소자 원천기술에서 백색LED 등 응용소자 및 조명기술, 모듈화 기술 등 응용 기술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美·日 특허전쟁 중 = 현재 전세계 LED에 대한 특허 분쟁은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면전 양상을 빚고 있다.

일본내 특허분쟁은 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평형 GaN(갈륨질소) LED 원천특허를 독점하고 있는 일본 니치아사와 도요다 고세, 룬 등 경쟁업체들간의 다툼이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LED기술 관련 특허권 침해소송(민사소송)만 5건, 특허권 무효소송(행정소송) 8건이 완료됐으며, 현

재 10여건의 민사·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니치아 등 일본업체들의 미국 기업에 대한 특허공세로 LED 특허 분쟁이 표면화되고 있다.

현재 니치아사 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과 미국 CREE사간의 힘겨루기 분쟁이 그것이다.

반대로 미국 조명기구업체인 오슬람은 니치아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백색 LED 관련 기술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 對한국기업 확산조짐 = 국내의 경우, 에피기술(LG전자, 에피밸리), FAB(삼성전기, LG이노텍), 패키징(서울반도체, 럭스피아) 등 요소기술업체와 그 밖의 응용 분야까지 합친다면 100여개가 넘는 회사들이 관련 산업에 진출해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제껏 관련 민사소송 분쟁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심사단계에 7건의 의신청이 제기됐을 뿐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아직까지 특

허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우선 국내 기업들의 생산액이 아직 선두업체들에게 경쟁상대가 될 정도로 확대되지 않는 데다, 현재까지 세계 선두기업들의 특허정책이 우선적으로 미국과 일본시장에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들어 국내 기업들의 LED관련 생산이 본격화하고 있는데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해외 진출도 본격 시도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에 대한 선진 외국업체들의 견제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란 게 특허청 및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LED 관련 특허범위가 원천기술은 물론 FAB, 패키징, 응용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보호 정책은 물론, 심지어 선진업체들과의 특허 라이선싱조차 크게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각 요소기술별로 체계적인 기술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인터넷 도메인 선점 못한다.. '상표권 인정' 입법 추진 ... 하반기 시행

유명 기업에게 되팔 목적으로 해당기업의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하는 행위가 빠르면 하반기부터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중인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에 저명기업의 인터넷 도메인 상표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도메인을 개인이 되팔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도 법원 결정에 의해 이같은 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통부는 이달중 법안 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

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명 기업인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서 심의해 판단하게 된다"며 "기업들이 마음놓고 경영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경제

## 우리나라 발명꿈나무들, 세계청소년창조성 경진대회(DINI)에서 우수 기량 발휘

- 우리나라 발명꿈나무 학생들이, 「제 23회 세계청소년 창조성경진대회(DINI)」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발명창조성을 발휘함
- 지난 5. 22~25(현지시간)까지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개최된 동 대회는
  - 미국을 포함하여 총 10개국에서 794개팀 2만 5천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5개부분의 장기과제와 즉석문제 등의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으며
  - 낙스빌 전도시를 배경으로 '창조인의 밤' 등 학생들의 화합과 팀간 교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핀 트레이딩(Pin trading) 등이 어우러진 4일간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음

- 우리나라는 지난 1월, 특허청과 삼성전자가 공동주최한 2002 전국학생 창의력을 락피어드에서 선발된 4개팀이 참가하였는데
  -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전통문화의 틀속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미한 공연을 펼쳐서 공연때마다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이름에 버금가는 환호와 관심으로 감탄과 박수가 연발되었으며,
  - 서울 수도전기공고팀이 특별상인 '다빈치 상'을 수상하는

외에 종합성적 4위(서울 수도공고팀, 이중구조물 부문), 7위(경기 부천북고팀, 외국문화탐험 부문)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발명 창조성을 세계에 확인시켰음.

- DINI대회의 공식 명칭은 Destination Imagination Global Finals 2002(d2k. 2)로서
  - 1962년 미국의 샘 니콜라스에 의해 OM(Odyssey of the Mind)대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되다가 지난 2000년부터 DINI대회로 확대 발전되어온 세계 청소년들의 발명 두뇌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으며,

- 토목, 건축, 전기 분야뿐 아니라 문학성, 예술성, 각국의 문화와 언어, 의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창조성 경진대회로서
- 미국 외 38개국의 회원단체를 가진 동 대회의 특징으로는, 일정한 문제를 미리 제시해 주고 현장경연으로 평가하는 장기과제와 현장에서 출제되는 즉석문제의 해결능력, 즉흥재의 활용능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평가하는 경진대회이며 5~7명의 학생들이 1팀을 이루어 팀간 브레인스토밍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협동심, 자신감 등 문제해결과정을 중시하는 대회임

-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사)한국학교발명협회가 "세계 OM협회"에 가입한 후
- '98년부터 매년 국내 대표팀 선발대회를 거쳐 올해로 5년째 동 대회에 참가해 왔으며
- 2000년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개최된 제21회 대회에서 서울 수도권전기공고팀과 경기 한수초교팀이 특별상인 '다빈치상'을 수상하였으며,

- 작년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개최된 제22회 대회에서는 서울 강남 발명교실팀이 삼중구조물(Triplicity)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여 대회참가 후 최초의 순위내 입상실적을 발휘한 바 있음
-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동 대회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대회 출전 및 입상학생들의 대학 특례입학을 추진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발명창의성을 계발하고 세계 무대에서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임

## 벽지에도 건강바람이 불고 있다

- 최근 생활환경과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장식용 벽지 관련 특허출원에서도 건강바람이 불고 있음
- 종래 벽지의 고유 기능인 실내장식 기능 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기능성 벽지에 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출원되고 있는 기능

성 벽지의 예를 들어보면

- 실내공기를 정화하고 인체에 이로운 물질을 방출하며 전자파 등 유해파를 차폐하는 건강벽지
- 높은 은폐성을 지녀 기존 벽지의 그림 또는 오염물이 새로운 벽지를 통해 비취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은폐성 벽지
- 벽지에 자석층을 형성시켜

벽면에 금속제의 일상용품이나 자성체로 만들어진 유아 교습용 부착품을 부착시킬 수 있게 한 자석벽지 등이 그것임

- 이러한 기능성 벽지에 관한 발명의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 '96년도 14건, '97년도 24건, '98년도 13건, '99년도

- 23건, 2000년도 21건으로서
- IMF사태가 발생한 '98년도를 제외하고는 '97년 이후 2000년까지 매년 20여 건씩 출원되고 있으며
- 2001년도 출원된 건으로서 2002년 5월 현재까지 공개된 출원건은 모두 15건으로서, 이러한 추세라면 2001년도의 기능성 벽지 출원건수는 2000년도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기능성 벽지의 구체적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벽지에 관한 출원이 가장 많음
- '96년~2000년에 출원된 전체 기능성 벽지 출원건수(95건)의 76%인 72건이 건강벽지에 관한 것으로서
- 이 중에서도 황토나 숯 등 천연소재를 첨가제로 사용한 출원이 64건으로 건강벽지 출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건강벽지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천연소재로는
- 황토가 으뜸이며 (39건 출원)
- 맥반석(22건 출원), 숯(20건 출원) 외에 옥분말, 바이오세라믹, 이산화티타늄( $TiO_2$ ), 일라이트, 게르마늄, 규사, 규조토, 썩, 국화, 허브식물 등으로 다양한 소재가 이용되고 있음

- 이들 건강벽지의 첨가제를 그 기능면에서 분류하여 보면
- 원적외선을 방사해 주는 물질 (황토, 맥반석, 옥분말, 바이오세라믹, 일라이트, 게르마늄, 규사, 규조토), 음이온 발생물질 (숯), 탈취·항균성 물질 (숯, 썩, 이산화티타늄) 및 자연향 발생물질 (썩, 국화, 허브식물)로 구분됨
- 이들 첨가제들은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 원적외선은 파장이 30~1000 마이크로미터의 적외선으로 인체에 흡수되어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키는 등 건강증진 효과를 나타내고
  - 음이온은 각종 오염으로부터 생활주변에 방출된 양이온을 흡착·중화시켜 음식물의 부패 방지,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며
  - 항균성 물질인 이산화티타늄( $TiO_2$ )은 형광등 빛이나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되어 대기중에 서식하는 각종 세균을 사멸시키는 항균기능 및 유기물,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악취·

- 유해물질을 산화분해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 자연향은 향기 치료능이 있어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실내장식재로서 기존에 사용되어 오고 있음
- 비닐과 플라스틱계열의 실크벽지는 사용시 발암물질을 내뿜고, 연소시 다량의 다이옥신과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것이 큰 단점임
- 일반 종이벽지도 인쇄잉크에 톨루엔과 같은 공해물질이 들어 있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기존의 장식용 벽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주거환경 및 건강에 대한 높은 의식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 합성화학물질을 천연소재로 대체한 건강벽지가 개발되어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 이러한 건강벽지의 개발은
- 건축 마감재를 무공해 천연소재로 시공하여 『친환경 건축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하는 건설업체들의 노력에 의해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